



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, 말하고,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

# 목장교회 나눔지

[3월, 마음에 새기는 말씀 - 마태복음 18장 10절]

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

## 얼음 깨기

## '나를 소개합니다'

목장 모임을 시작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계시지요. 다음의 질문에 같이 이야기 나누며 편안하게 자신을 소개해봅시다.

- 1\_ 처음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?
- 2\_ '하나님'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이지요?
- 3\_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가장 좋은 점은, \_\_\_\_\_ 입니다!

## 교회행사

### 3월

- 5일 상반기 양육훈련 시작  
부부 사랑학교 시작
- 11일 어와나 입단식
- 26일 성례식

### 4월

- 2일 종려주일/성찬식
- 3-8일 고말기  
“고난주간 말씀과 기도”
- 9일 부활 주일

## 경배 찬양

## “너무나도 아름답도다”

- 1.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 
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 
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 
죄 가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
- 2.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나는 부럽지않아  
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 
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 
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
3.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 
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 
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 
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 
아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 
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 
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

## 선교지

## [정동준 선교사]

### 우간다

1. 신학생, 무슬림인 소말리 난민에게 성경공부를 통해 은혜가 스며들도록
2. 우물을 통한 사역이 다른 마을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
3.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정직하고 성실한 열정의 선교사가 되도록
4. 온 가족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

## 소식

### 1. 목장 모임

우리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목장 모임은 주중에 교회 모든 공간 사용이 가능합니다. 특히 목장 모임을 위한 코너스톤빌 1층 커뮤니티룸은 사무실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.

### 2. 성례식

3월 26일 주일 성례식이 있습니다. 대상자께서는 함께 신청하여 주세요.

### 3. 모집

오렌지 사역 TF팀을 모집합니다. 오는 5월,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자 합니다. 이를 위해 섬김의 마음으로 함께하실 분께서는 꼭 자원해주시기 바랍니다. 문의 김성연 목사 (010-2527-5063)

## 한문장 큰 울림

**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  
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 
기도를 배울 수 있는  
가장 좋은 방법이다**

- 존 파이퍼 -  
(베들레헴 침례교회)

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

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(마태복음 17장 5절)

주와 같이 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 
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

우리는 여러 찬양을 함께하면서,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참 기쁘고 즐거움을 고백합니다. 그러나 때때로 마주하는 현실의 상황은 그저 ‘평탄한 길’은 아님을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지요. 믿음으로 걸어갔던 많은 이들의 고백을 들으면,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과 기쁨이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. 주님께서 가셔야 할 분명한 길을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요. 주님 가신 길은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었기에,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.

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떠할까요?  
이 길을 걸어가며,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?

오늘 본문에서, 예수님께서서는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 되시고 (2절)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선택된 이들에게만 허락됩니다. 이는 부활의 현장에서, 승천의 자리도 마찬가지였지요. 주님께서서는 모든 이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제자들 중에서 3명에게 보이셨습니다.

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는 “변화”는 “완전한 변화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엄밀히 말하면 이는 주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.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본 것이며 (계 1:16-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)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, 모세(구약 율법을 대표)와 엘리야(구약 선지자를 대표)와 함께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.

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무슨 말을 할지 몰랐습니다.  
이 본문은,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?

### 1\_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.

모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,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. “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”(5절 후반부) 이 말씀은,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. (신 18:15 -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) 예수님은 예언된 바로 그 분이심을 분명히 입증하셨지요. 제자의 마땅한 반응은 ‘그 말씀을 듣는 것’입니다.

[질문] 내 삶 속에,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있나요?

### 2\_주님은 우리를 삶의 자리로 부르십니다.

제자들은 사실,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.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며 그저 거기에 머물고 싶었지요.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할 삶의 자리는 ‘산 위’가 아니라 ‘산 아래’였습니다. 바울은 신 앙생활을 권면하며 ‘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’(롬 12:2) 라고 말하면서, 주님께서 변형되셨다(2절)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. 이는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, 일상에서 일어나는 분명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.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주심을 말합니다.

[질문]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었나요?  
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?

### 3\_그 말씀으로, 담대히 직면할 수 있습니다.

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주신 것은,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거쳐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변화되실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. 다시 말해, 고난을 예고한 것이지요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에 직면할 수 있나요?

영광스러운 경험을 통해, 담대히 고난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. 더 나아가,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, 산 아래로 내려와서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. 그러나, 그저 신비적인 체험이나, 예배 자리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.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. 그 삶을 위해,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.

[나눔] 삶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었나요?  
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?

나눔

주일 말씀 [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/ 마태복음 17: 1-13]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.  
목장 식구들의 삶의 이야기를 서로 들으며,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의 자리로 나아갑니다.

|        |  |
|--------|--|
| 듣음으로   |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,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듣게 하여 주옵소서.        |
| 기도     | 삶의 자리로   |
| 그 말씀으로 | 오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, 다가올 고난과 어려움도 직면케 하여주소서. |